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대...매출 증가율 첫 마이너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석유정제 업종 부진 매출 증가율 -1.0% 통계 작성 이래 첫 마이너스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한계기업'이 100곳 중 4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 증가율도 통계작성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 업종의 부진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40.9%로 1년 전(36.6%)보다 4.3%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비용 영리법인기업 2만587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 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 40.9%로 같았다. 이에 영업이익에 이른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기업비율도 30.5%에서 34.7%로 4.2%포인트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33.5%, 중소기업이 34.7%였다.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5배를 넘는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은 38.4에서 37.4%로 1%포인트 축소됐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팀장은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정제, 화학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 적자를 본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며 "대출이나 차입금을 늘리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한계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28.95%로 전년(326.53%)보다 소폭 올랐지만 2018년(470.86%)과 비교해보면 141.9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비율이 낮을수록 기업들의 빚 갚을 능력이 나빠

졌다는 얘기다. 기업의 매출액은 -1.0%로 집계돼 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이 -2.3%로 전년(-1.7%)보다 더 떨어졌다. 전자·영상·통신장비(7.0%)의 상승에도 석유정제·코크스(-34.1%), 화학물질·제품(-8.0%), 1차금속(-7.2%)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비제조업은 0%로 전년(2.3%)보다 둔화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자·영상·통신 장비는 수요가 늘어났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 감소폭이 더 컸다. 대기업의 매출액은 -4.6% 줄어 전년(-2.3%)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견기업도 -3.5% 감소해 전년(-1.3%)보다 더 쪼그라 들면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중소기업은 4.2%에서 3.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역시 매출 증가폭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김 팀장은 "이동제한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은 석유정제와 화학제품 업종, 건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았다"며 "반면 지난해 비대면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의 경우 매출액이 좋았는데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인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었고, 부동산 매출도 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매출액은 부진했다"고 말했다.

매출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기업들이 1000원 어치의 물건을 팔았을 때 세금을 빼고 거둬들이는 이익이 42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이 4.6%로 전년(4.4%)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4.0%에서 3.9%로 0.1%포인트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로 전년과 같았고, 중소기업은 3.4%에서 3.5%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77.6%에서 76.8%로 낮아지면서 수익구조는 다소 좋아진 반면, 판매관리비 비중은 13.2%에서 13.8%로 소폭 늘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18.3%로 전년(115.7%)보다 소폭 올랐다. 제조업은 73.5%에서 76.3%로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157.8%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에서 157.3%로 하락했다. 석유정제업종의 수익성 악화와 전자·영상·통신장비의 신규투자 등의 영향이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이 94.9%에서 97.3%로 늘었고, 중소기업은 162.3%에서 166.3%로 증가했다. 차입금의존도는 29.5%에서 30.4%로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이 24.5%, 중소기업이 40.2%였다.

이 팀장은 "제조업의 경우 국제유

가 하락으로 석유정제업종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자·영상·통신장비 신규투자가 이어지고, 자동차업종에서 리콜 이슈로 총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반면 비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수요가 늘고, 부동산 부문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부채비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국민카드, SKT와 취약계층 위한 ESG 상품 출시

치매 환자·발달 장애인·아동 등 사회 취약 계층 대상



SK국민카드는 SK텔레콤의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돌봄 서비스인 '스마트 지킴이2'와 연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화 상품 출시 기념식을 갖고, 취약 계층 돌봄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확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양사가 선보인 ESG 특화 상품 'KB국민 스마트 지킴이 카드'는 SK텔레콤이 무선 이동 통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결합해 손목 시계형 무선 위치 추적기(스마트 트래커) 형태로 서비스 중인 '스마트 지킴이2' 관련 혜택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의 '스마트 지킴이2'서비스는 치

매 환자·발달 장애인·아동 등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확인 ▲심박수 등 건강 정보 확인 ▲낙상 위험 감지 ▲위급 상황시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출시된 'KB국민 스마트 지킴이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스마트 지킴이2' 단말기 할부 기간 동안 제공된다. ▲통신요금 ▲택시·우티 자동결제 ▲병원·약국·배달앱·대형마트 이용시 월 최대 3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카드 고객이 SK텔레콤의 '스마트 지

킴이2' 단말기를 전용 구매처를 통해 24개월 할부 약정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원의 카드 결제대금에서 정액 할인된다.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만원 할인이 단말기 할부 기간 동안 제공된다.

이 카드로 SK텔레콤과 KB국민은행의 리브엠(Liiv M)의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결합상품 등 통신 요금을 자동납부하면 1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할인은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원까지 가능하다.

또 택시 업종과 '우티(UT)' 자동결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00원 범위 내에서 결제금액의 5%가 할인되고 ▲병원 ▲약국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4개 업종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원까지 5% 할인이 제공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1만 5000원이며, 플라스틱 실물 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받으면 9000원이다.

서선욱기자

하나카드, 사이판 여행경비 최대 8만원페이백 이벤트



하나카드는 정부의 첫번째 트래블 버블 여행지인 사이판을 방문하는 하나카드 고객을 위해 '켄싱턴 호텔 사이판 & 사이판 여행경비페이백' 이벤트를 마리아나 관광청 및 켄싱턴 호텔 사이판과 함께 진행한다고 27일 밝혔

결제금액의 15% 최대 5만 하나머니 혜택 제공

다. 켄싱턴 호텔 사이판페이백은 해당 호텔의 식음료매장·럭셔리 갤러리 및 코럴 오션 리조트(골프)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5%(최대 5만 하나머니)를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사이판 여행경비페이백은 켄싱턴 호텔 사이판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사이판 현지에서 10만원·20만원·30만원 이상 하나카드로 결제시 1만·2만·3만 하나

머니를 적립해준다. 또 하나멤버스앱에서 환전지갑을 통해 미국달러화 환전시 100% 환율 우대 효과(90% 환율 우대+환전 완료 시 10% 하나머니 적립)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하나카드 홈페이지, 1Q Pay, 하나카드의 글로벌 플랫폼인 G.Lab에서 응모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거리두기에 폐업증가...임대료 하락, 공실률 올라

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지난 3분기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가격지수 및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감소와 거리두기 여파로 공실률도 높아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이 같이 나타났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 0.13% 하락했다. 선호도가 낮은 노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차인 유치를 위해 렌트프리 등 임대료 할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수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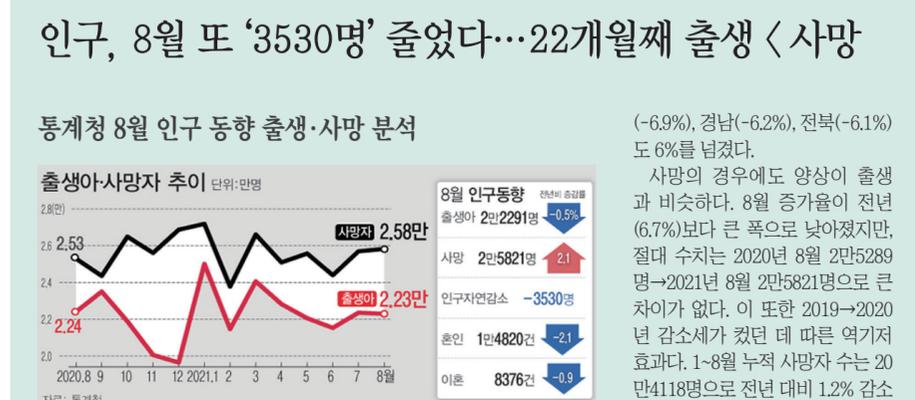
상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모임 및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상권침체,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전체 중대형(0.24%), 소규모(0.30%), 집합(0.23%) 등 전체 상가유형에서 모두 하락했다.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80%, 중대형상가 1.57%, 소규모 상가 1.38%로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공실률을 보면 오피스는 주요 권역에 위치한 등급이 높은 오피스는 안

정적 임차시장을 유지하며 10.9%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상가는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이 증가하고 신규 임차수요가 감소하며 중대형 상가 13.3%, 소규모 상가 6.5%를 나타냈다. 전분기보다 각각 0.1%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 남대문 상권 등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명동의 경우 중대형 상가 47.2%, 소규모 43.4%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대/합정 상권 공실률도 각각 17.7%, 24.7%로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슬비기자



인구가 지난 8월에만 3530명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21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출생아 수는 2만2291명으로 전년(2만2402명) 대비 0.5%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5821명으로 전년(2만5289명) 대비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연 증가(출생아-사망자) 수는 마이너스(-) 3530명을 기록했다.

이런 인구 수 자연 감소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7566명이었던 인구 자연 증가분은 2020년 -3만2611명으로 하락 반전했다. 올해 1~8월 누적으로는 -2만2558명이다. 자연 감소 속도가 점

차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8월 시·도별 감소세를 보면 전남(-4.5%)이 가장 강했다.

출생의 경우 8월 감소율은 전년(-8.1%) 대비 큰 폭으로 약해졌다. 다만 절대 수치 자체는 2020년 8월 2만2402명→2021년 8월 2만229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세가 컸던 데 따른 역기지 효과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1560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8월 출생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경북 8곳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인천·대전·울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9곳은 감소했다. 1~8월 누적으로 보면 전남(-12.3%)의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충남(-7.8%), 인천(-7.5%), 울산

(-6.9%), 경남(-6.2%), 전북(-6.1%)도 6%를 넘겼다.

사망의 경우에도 양상이 출생과 비슷하다. 8월 증가율이 전년(6.7%)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절대 수치는 2020년 8월 2만5289명→2021년 8월 2만582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또한 2019→2020년 감소세가 컸던 데 따른 역기지 효과다. 1~8월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4118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1~8월 누적 사망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5.0%)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경기(4.6%), 울산(3.9%), 서울(2.9%), 대전(2.3%), 충북(1.9%), 강원(1.8%), 인천(1.7%), 광주·전북(각 1.2%) 순이다. 대구(-3.5%), 경북(-3.3%), 충남(-1.7%), 전남(-1.3%), 세종(-0.9%), 부산·경남(각 -0.4%)은 감소했다.

혼인의 경우 8월 1만4720건을 기록해 전년(1만5032건) 대비 2.1% 감소했다. 1~8월 누적(12만6724건)으로 봐도 전년(14만1389건) 대비 10.4% 감소했다. 단 2019→2020년 모두 9월부터 12월까지 매일 1만 5000건 안팎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여 올해도 이 기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